

같이 보기

: 소통N공감

# 너, 나, 우리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

요즘 사회·경제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것 중 하나가 ESG 경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ESG 경영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글 편집실



## 지속가능한 내일을 견인하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ESG 경영. 그렇다면 ESG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합한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통칭하는 말이다. 과거 기업의 경영평가 때 전통적으로 재무적인 성과만을 판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이 환경문제나 사회문제처럼 지속가능한 미래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경영철학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ESG 경영이다. 뜻을 살펴보면 기존에 기업들이 말해오던 사회적 책임(CSR)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제로 1948년 ESG 경영의 개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UN 인권 선언 체결에서부터 시작되어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속되어 현재 ESG 경영의 틀이 된 것이다.

이렇듯 최근에서야 주목받게 된 ESG 경영은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으로, 본격적인 ESG 경영의 시작은 2000년 영국이 연금(연금+기금)을 대상으로 한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들어 기후와 환경 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금융과 함께 점차 자리를 잡아 현재에 이르렀다.

## 국가, 기업, 국민이 함께하는 ESG 경영

2020년 ESG 열풍에 불을 지핀 사건이 생겼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기후 리스크도 투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ESG에 위배되는 기업을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서 제외한 사건이다. 즉, 기업을 평가할 때 환경 보호에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비재무적인 지표들을 기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만큼 블랙록의 운용자산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수 배 이상이어서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컸다. 이에 따라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사들 역시 ESG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국내 역시 이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발표하면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등급을 평가해 측정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경영·환경 성과·이해관계자의 대응 항목을,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자·협력사·경쟁사·소비자·지역사회 항목을,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감사기구·공시 항목을 평가한다.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로 나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기업의 ESG 경영.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내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인 우리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